

# 전기차/배터리산업

## 전기차산업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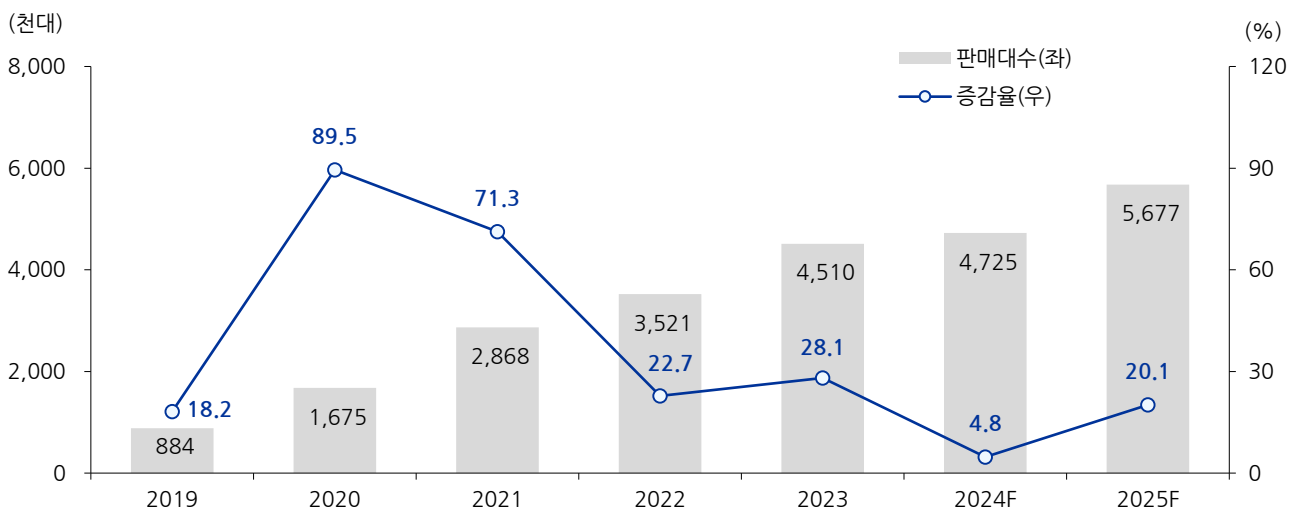
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관련 정책 기조가 동일하다면 2025년 합산 전기차 판매가 20% 증가할 것으로 예상. 저평가된 종목들은 추세 전환 가능하나, 고평가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검증 강화될 것

## 업황에 영향 큰 이벤트들에 주목

Green Industry [한병화\\_02\)368-6171\\_bhh1026@eugenefn.com](mailto:한병화_02)368-6171_bhh1026@eugenefn.com)

- 전기차/배터리 업황에 영향 미칠 이벤트들은 1) 미 대선, 2) EU CO2 배출 규제 준수 여부, 3)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
- 위 변수들 모두 전기차 확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된다 가정하면 내년 전기차 판매 성장률 확대 가능
- 유럽의 2025년 판매 증가율은 16%로 1) 2024년 역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, 2) CO2 배출 규제 확대 원인
- 미국의 2025년 성장률은 27%로 1) 2024년 예상보다 부진한 판매에 따른 기저효과, 2) 신규 모델 도입 증가 때문
- 미국과 유럽의 합산 판매 증가율은 올해 5%에서 2025년 20%로 상승 가능
-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확보했으나, 유럽 점유율을 중국으로부터 사수할 수 있는지 살펴야
- 재성장세 감안하면 배터리 관련주 투자 환경 개선 가능. 다만 해외 비교업체들 대비 지나치게 고평가된 업체들은 밸류에이션 검증이 더 강화될 것. 고밸류에이션에 대해 업황 타격을 할 수 없기 때문

미국, 유럽 합산 전기차 판매 내년부터 재성장세 가능(긍정적 가정 완성 조건하의 추정)
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유럽 올해 역성장,  
2025년 16%  
판매 증가 예상

유럽의 올해 전기차 판매는 전년대비 0.5% 역성장이 예상된다. 독일의 20%에 달하는 판매 감소와 프랑스, 스웨덴, 벨기에 등의 성장 부진 여파이다. 연 초에만 하더라도 10% 후반의 성장을 예상했으나,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이 예상된다. 2025년 유럽의 판매는 1) 올해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, 2) CO2 배출 규제 회피를 위한 판촉으로 20% 성장이 예상된다. 만약 EU가 CO2 배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, 지나치게 엄격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부과하면 성장 폭이 낮아질 수 있다. 이에 대한 결정은 11월 EU의 집행위가 공식으로 출범하고 나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.

2025년 미국과  
유럽 합산 판매량  
20% 증가 예상

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올해 판매가 16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. 올 초 예상치는 30%를 상회했었다. 기저효과와 신규 모델 출시 증가로 2025년에는 27%의 판매 성장이 예상된다. 이 예상치는 해리스가 당선된다는 가정을 근거하고 있다. 미국과 유럽의 합산 전기차 판매는 2024년 4.8%로 부진했으나 2025년에는 20%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.

고밸류에이션 종목들에  
대한 검증 강해질 것

올해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대부분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동반해서 경험했다.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가 공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. 2025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재성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. 미 대선과 EU 신임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확정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, 극단적인 정책 유턴이 나온다고 가정을 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. 만약 내년에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이 20%의 성장이 나온다면 이에 근거해서 국내 배터리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정해질 것이다. 시장 대비 높은 이익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담보된 업체들의 주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. 하지만, 재성장세 진입에도 불구하고 2025~2026년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이 해외 비교업체들 대비 2~3배 이상 높은 일부 업체들은 투자자들의 검증대상이 될 것이다. 고밸류에이션에 대해 업황 타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도표 1.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

(천대)	2022A	2023A	2024F	2025F	2026F	2027F	2028F	2029F	2030F
<b>북미 전기차 판매량</b>	<b>1,042</b>	<b>1,621</b>	<b>1,902</b>	<b>2,408</b>	<b>3,143</b>	<b>4,039</b>	<b>5,021</b>	<b>6,042</b>	<b>7,149</b>
미국 전기차 판매량	918	1,436	1,665	2,117	2,782	3,599	4,482	5,383	6,345
YoY(%)	51.2	56.3	15.9	27.2	31.5	29.3	24.6	20.1	17.9
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(%)	6.4	8.9	10.0	12.4	15.9	20.2	24.7	29.1	33.6
캐나다 전기차 판매량	124	185	238	291	361	441	539	659	804
<b>아시아,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</b>	<b>6,229</b>	<b>8,515</b>	<b>10,840</b>	<b>12,797</b>	<b>14,924</b>	<b>17,144</b>	<b>19,401</b>	<b>21,313</b>	<b>22,980</b>
중국 전기차 판매량	5,924	8,095	10,313	12,133	14,089	16,088	18,063	19,594	20,744
YoY(%)	83.7	36.6	27.4	17.6	16.1	14.2	12.3	8.5	5.9
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(%)	22.1	26.9	33.3	38.0	42.8	47.5	51.8	54.5	56.0
일본 전기차 판매량	55	84	122	176	255	373	535	765	1,090
YoY(%)	30.0	53.6	45.3	43.7	44.8	46.2	43.6	43.0	42.5
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(%)	1.2	1.8	2.5	3.6	5.1	7.3	10.3	14.4	20.1
기타 아시아 총합	499	671	810	975	1,159	1,367	1,607	1,908	2,294
<b>유럽 전기차 판매량</b>	<b>2,602</b>	<b>3,075</b>	<b>3,061</b>	<b>3,560</b>	<b>4,004</b>	<b>4,513</b>	<b>5,098</b>	<b>5,873</b>	<b>6,747</b>
YoY(%)	15.1	18.1	(0.5)	16.3	12.5	12.7	13.0	15.2	14.9
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(%)	22.3	23.1	22.5	25.7	28.3	31.3	34.6	39.1	44.1
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	218	480	623	798	997	1,227	1,472	1,737	2,033
전세계 자동차 판매량	79,475	87,242	89,860	92,556	95,332	97,239	99,184	101,167	103,191
YoY(%)	(1.1)	8.0	3.0	3.0	3.0	2.0	2.0	2.0	2.0
<b>전세계 전기차 판매량</b>	<b>10,091</b>	<b>13,689</b>	<b>16,426</b>	<b>19,563</b>	<b>23,068</b>	<b>26,924</b>	<b>30,993</b>	<b>34,965</b>	<b>38,909</b>
YoY(%)	55.0	35.7	20.0	19.1	17.9	16.7	15.1	12.8	11.3
<b>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(%)</b>	<b>12.7</b>	<b>15.7</b>	<b>18.3</b>	<b>21.1</b>	<b>24.2</b>	<b>27.7</b>	<b>31.2</b>	<b>34.6</b>	<b>37.7</b>

자료: EV-Sales, 유진투자증권

**Compliance Notice**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
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
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
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
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
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
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  
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 
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**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**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개월 (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증가대비 +50%이상	0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증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5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4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0%미만	1%

(2024.06.30 기준)